



■ KIA 서재응 부상 따른 마운드 대책은?

용병 리마 1선발 가능성

메이저리그 13년 경험 바탕
다양한 구질·경기운영 탁월
전후선 전력투구 등 구슬땀



그러나 회복이 완전치 않을 경우 메이저리그 20승 투수 리마가 서재응 대신 1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구질을 보유한 리마는 메이저리그 13년의 풍부한 노하우와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으로 서재응과 함께 8개 구단 최강의 원-투 펀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한국 무대 진출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리마는 KIA와의 계약이 마무리되자마자 입국을 서둘러 동료들과 함께 1월 9일부터 곧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등 높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지훈련에서는 특유의 너스레와 활발한 성격으로 팀 적응을 완벽하게 끝냈다. “누가 새로운 선수고, 기존의 선수인지 모르겠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
리마는 곧 전지훈련에서 하프 피칭을 건너뛰고 바로 정상적인 피칭을 소화해 내는 등 빠른 속도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처음 한국무대를 경험한 만큼 리마가 시즌 첫 경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는 없다.
한국의 타자들에게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적지에서 처음 데뷔 무대를 갖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은 메이저리그 통산 89승을 보유한 리마를 역대 최고의 용병으로 꼽는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한국 나들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리마의 일거수 일투족이 위기를 맞은 조범현호의 2008시즌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축구 동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1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대표팀과 송실대와의 친선 경기에서 박주영(오른쪽)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팀이 박주영 등의 활약에 힘입어 4-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전남 고기구 허정무호 추가 승선

대구 이근호·울산 오장은도 대표팀 발탁

공격수 이근호(23·대구)와 고기구(전남), 미드필더 오장은(23·울산)이 허정무호에 추가 승선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올림픽대표팀의 이근호와 오장은, 장신 스트라이커 고기구가 새로 포함된 2008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17-24일, 중국 충칭) 참가 선수 명단 23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표팀 23명에는 지난 6일 열린 투르크메니스탄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나섰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풀럼), 김두현(웨스트 브로미치)과 오범석

(포항) 등이 제외됐다.
발탁이 좋지 않았던 공격수 이동식(제주)도 빠졌다.
올해부터 일본 J-리그에서 뛰게 된 김남일(비셀 고베)을 제외하고 모두 국내파로 구성됐다.
허정무 감독은 공격력 강화를 위해 이근호와 고기구를 긴급 수혈했다.
이근호는 지난해 프로축구에서 27경기에서 출전해 10골3도움을 올리며 토종 골잡이의 자존심을 세웠다. 187cm의 고기구는 지난해 포항에서 24경기를 뛰며 2골을 넣어 팀의 K-리그 우승에 힘을 보태는 등

프로 통산 네 시즌 동안 99경기에 출전해 16골6도움을 기록했다.
코칭스태프는 미드필더 김정우의 발탁도 검토했지만 김정우가 현재 잉글랜드로 건너가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타진 중이어서 이번에는 대표팀에 부르지는 않기로 했다.
◇2008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명단(23명)
▲GK = 김용대(광주) 정성룡(포항) 염동균(전남) ▲DF = 광태휘(전남) 광희주(수원) 황재원(포항) 조성형(포항) 조용형(성남) 강민수(전북) ▲MF = 조원희(수원) 이종민(울산) 김치우(전남) 박원재(포항) 김남일(비셀 고베) 오장은(울산) 이관우(수원) 황지수(포항) 구자철(제주) ▲FW = 조진수(제주) 박주영(서울) 염기훈(울산) 고기구(전남), 이근호(대구)



11일 미국 유타주 컨츠에서 벌어진 2008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0m 계주와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남(왼쪽)녀 대표팀이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시백·이승훈 2관왕 듀엣

남 5천m·여 3천m 계주 우승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

남녀 쇼트트랙대표팀이 2008 세계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에서 남녀 계주를 휩쓴 가운데 성시백(연세대)과 이승훈(한국체대)이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남녀 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막을 내린 대회 마지막 날 계주 결승에서 나란히 중국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성시백은 앞서 치러진 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41초160으로 관운기(신목고·41초256)를 0.09초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오른 뒤 5,000m 계주 주자로 나서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태며 2관왕을 차지했다.
또 전날 남자 1,500m를 석권했던 이승훈도 계주 우승으로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 여자 대표팀은 진선유(단국대)와 정은주(한국체대)의 동반 부진으로 이번 대회 개인 종목에서 단 1개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해 우려를 자아냈다.
전날 1,500m에서 15위에 그쳤던 진선유는 이날 1,000m에서도 7위로 밀려났고, 1,

500m 결승에서 실격됐던 정은주 역시 여자 1,000m 4강 진출에 실패해 10위로 처졌다.
또 500m에 나선 신새봄(광문고)과 박승희(서현중)도 모두 결승에 오르지 못한 채 각각 5위와 7위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결국 1,000m 결승에 나선 양신영(분당고)이 따낸 동메달이 이번 대회 여자 대표팀의 유일한 개인 종목 메달이었다.
그나마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에서 4분09초938로 중국(4분09초981)을 가깝스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해 구겨진 체면을 살렸다.

맨유 박지성 후반전 투입 공격포인트 없고 팀은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맨체스터 50주년을 맞아 펼친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에 완패를 당했다. 박지성(27·맨유)은 후반전 투입됐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맨유는 11일 잉글랜드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끝난 맨시티와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6차전 홈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박지성은 후반 19분 루이스 나니와 교체 출전한 뒤 왼쪽 날개로 뛰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한 차례 중거리포를 날렸지만 아쉽게 골맛을 보지는 못했다.
맨유(승점 58)는 정규리그 5경기 연속무패 행진(4승1무)을 마감했다.

골프·연호 회원권

골프장: 신촌골프장	골프장: 신촌골프장
관 주 3,500	총 실비 1,700
남관 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도 포함 2,100

상담 문의 (062)351-0095

강진에 '야구공원' 조성

온화한 기후와 맞닿은 음식으로 이름난 강진에 대규모 야구 전지훈련 시설을 갖춘 베이스볼 파크가 조성된다.
강진군은 “오는 15일 도암면 현지에서 베이스볼 파크 조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조성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일대 17만㎡에 들어설 베이스볼 파크는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며 정규 규격을 갖춘 야구장 6개와 리틀 야구장과 실내 연습장 각각 2개, 수영장 등을 갖춘 예정이다.
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야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유스호스텔과 해수욕장, 전문식당, 스포츠용품점, 스포츠 카페 등도 함께 들어선다.
군은 작년 10월 ㈜강진베이스볼파크와 이 사업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 베이스볼 파크는 인허가와 국유지

도암면 17만㎡에 200억 투입 야구장 6개·연습장 등 갖춰

매일 등을 거쳐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이 시설이 축구와 야구 등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살려 국내외 프로팀의 훈련캠프로의 활용, 야구 아카데미 설립 등 야구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양용은 PGA 첫 톱 10

페블비치 내셔널프로암 9위

‘야생마’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양용은은 11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페블비치 골프링크스(파72·6천816야드)에서 열린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4라운드에서 1타를 잃었지만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올해 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된 양용은은 시즌 내번째 출전한 대회에

서 처음 톱10에 이름을 올려 다음 대회 활약을 예고했다.
양용은과 함께 공동 5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맞았던 노장 스티브 로리(미국)는 4타를 줄인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쳐 선두였던 비제이 심(피지)과 연장전에 들어간 뒤 버디를 낚아 8년만에 통산 세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진(31·던롭스릭슨)은 2언더파 286타로 공동 34위, 나상욱(24·코브라골프)은 1언더파 287타로 공동 43위,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1오버파 289타로 공동 53위에 자리했다.

이형택 ‘발물집’ 분류 데이비스컵 독에 8강 좌절

세계 13위 한국이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 테니스 16강이 겨루는 월드컵 세 번째 도전에서도 1회전 고비를 넘지 못했다.
전영대 감독이 이끄는 남자 테니스 대표팀은 1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니더작센주 브라운 슈바이크 폴크스바겐 할레에서 끝난 세계 5위 독일과 1회전 셋째날 경기에서 전용선(336위·개인)이 미카엘 베레트(62위)를 2-1(6-1 3-6 6-4)로 이겼다. 그러나 그 전에 오른쪽 발바닥 물집을 참가하며 분전한 이형택이 필립 콜슈라이버에게 1-3으로 패하면서 전체 전적 2승3패로 아깝게 8강 진출에 실패했다.